

풍성한 교육기부 알찬 결실 맺어

유학생 '지구촌 문화교실' 퇴직 교원, 더담학생 지원 학부모 '놀이밥퍼'·연극 공공기관 '월드립캠프' 등

전북도교육청은 개인이나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사회자원을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 기부는 크게 유학생, 퇴직 교원, 학부모, 공공기관들의 참여로 요약된다. 먼저 도내 대학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문화교실'은 초등학교에 유학생들이 찾아가서 자국의 언어, 문화, 놀이, 자연환경 등을 소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에 재학 중인 7개국 유학생 51명이 전주, 군산, 익산지역 61개 초등학교 2만2천8백여명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고 만족도가 92.5%에 이를 만큼 높게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이다.

이와 함께 퇴직 교원 24명은 지난해 기초학력 더담학생 지원 재능기부단을 꾸려 학습더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또는 수업 중 학습 지원 활동을 했다.

학부모들의 재능 기부도 활발하다. 지난해 학생들의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밥퍼' 9개 동아리는 전주 등



“오늘 수업은 탄핵심판 선고 방송 시청으로” 지난 10일 탄핵심판 결정 선고 방송을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방송'을 학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7개 지역에 학교와 공원에 37개 놀이길을 만들었다. 놀이길은 사방치기 등 민속놀이판을 바다에 그리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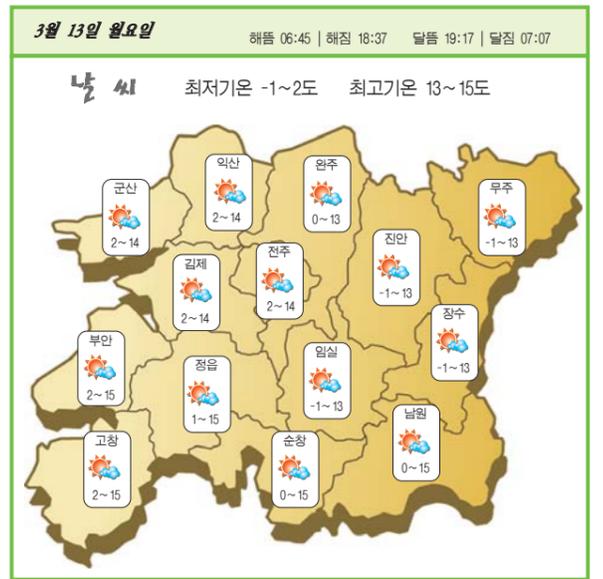
또한 학부모 동화연극 지원활동가 8개 동아리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동화 연극 공연과 책 읽어주기 활동을 펼쳤으며 학부모 54명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재능기부단을 꾸려

학습더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활동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교육 기부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29개 학교에서 '월드립캠프'를 운영했고 대이수목원은 61개 학교에서 목공예, 꽃누리미 체험 등 산림

문화체험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기관에서 교육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진로·직업체험 활동,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 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U-20월드컵 전주 개막전 1등석 티켓 매진

2등석·응원석은 아직 있어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불과 71일(10일 기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의 티켓판매가 늘면서 대회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개막전 경기에 대한 기관과 기업 등 단체구매와 개인 구매가 줄을 이으면서, 1등석(CAT1) 좌석 티켓이 모두 매진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2등석(CAT2)과 응원석(FEVER존) 좌석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최근 직장과 동아리 단위로 경기를 즐기려는 단체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회 조추첨이 끝나면 전주에서 경기를 치를 참가국과 대진표가 확정돼 입장권 구매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

다보고, 경기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티켓 구매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번 대회 참가국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유럽의 전통 강호인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U-20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아르헨티나(6회), 우루과이 등 6개 대륙의 내로라하는 축구 강국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하면서, 대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막도시인 전주의 경우,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선 2경기과 성적에 따라 16강과 4강전 등 총 4경기가 예정돼 있어 국내 축구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티켓 구매는 대회조직위 공식홈페이지(kr.FIFA.com/u20ticket)와 콜센터(1544-1555),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063-281-6686)을 통해 가능하며, 11일 이상 단체 구매 시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 본격화

시, 올해 총 5억원 투입 장기 임대주택 공급...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전주시가 서민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방향 설정과 기본정책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은 전주시 주

거복지 핵심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5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공적인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과 전주형 사회주택 모델 발굴을 위해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시와 서울시 등 사회주택이 도입된 선진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1호인 '더불어 숲 상산'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인 '민달팽이' 협동조합, 빈집 활용 리모델링 사회주택인 '두꺼비 하우스' 등 다양한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 주도의

주거공동체 운영과 공유주택 운영 현황, 사회주택 관리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대 70주년 기념 엠블럼 확정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70주년 기념 엠블럼을 확정했다.

확정된 엠블럼은 군산대학교가 추구해온 가치와 미래비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한 후 결정됐다.

엠블럼의 전체적 윤곽인 마름모꼴은 순수한 학문의정당을 의미하고, 오른



쪽으로 높게 솟은 모양은 힘차게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숫자 7과 0이 동일 선상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주요색인 파랑색과 노랑색은 군산대학교의 교색이다.

군산대학교는 개교 70주년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대학 관련 인쇄물, 홍보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적극 활용하며 70년 전통의 역사와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세계 속의 군산대학교'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3월 전북교육아카데미 '과학 특강'

3개월마다 실시하는 전북교육아카데미가 이달에는 과학을 주제로 오는 20일 오후 7시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과학하는 사람들' 원종우 대표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날 특강에서는 '과학으로 찾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주제로 각종 과학의 원리, 과학교육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원 대표는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과학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문

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상공회대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1 2 3 4 5, 호모 사이언티쿠스, 태양계 연대기 등이 있다. 현재 팟캐스트 '과학하고 있네'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전북교육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